

혁사의 땅에 봄이 친위인청송의 열기

길림의 4월은 뜨겁다

통일신보편집국은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중국 길림에서 진행된 재중동포들의 다채로운 경축행사를 취재하였다.

백두산위인들의 거룩한 발자취가 어려있는 중국동북방의 이르는 곳마다에 귀중한 력사의 사연들이 어려있어 뜨거운 추억을 자아낸다. 송화강 반에 자리 잡고 있는 길림은 위대한

각지에서 너도나도 길림으로

4월 14일 길림시의 북경로 속8호텔은 이른아침부터 흥성이었다. 태양절경축행사에 참가하려고 각지에서 달려온 재중동포들이 열싸안고 감격적인 상봉을 하고있었던 것이다.

《이게 심양시의 권현지부장선생이 아니요?》

《무슨시에서도 오셨구만요.》

《우리 흑룡강성에서는 이렇게 큰 <대표단>을 무어가지고 왔습니다.》

... 손을 맞잡고 반갑게 해수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청년시절에 혁명활동을 벌리신 유서깊은 곳으로서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잘 알려져있는 뜻깊은 고장이다. 태양절을 맞으며 재중동포들의 마음과 발걸음은 력사의 땅, 길림에서 열리게 될 경축행사장으로 달려갔다.

를 나누는 동포들속에는 멀리 떨어진 대원수에서 온 윤영화동포일행도 있었고 목단강시와 계서시 등에서 기차를 타고 달려온 동포들도 있었다. 길림시에서 수백km 떨어진 통화시에서 왔다는 리성학, 리성자남매들도 볼수 있었다.

먼곳에서 오시느라 수고가 많았겠다고 하는 우리에게 재중동포들은 우리가 태양절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 모른다. 그래서 뜻깊은 태양절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먼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었다.

남조월 흑룡강성 목단강지구협회 회장은 《4월의 길림은 화창한 봄날이지만 흑룡강성은 아직도 춥다. 그래서 아직 두툽한 솜옷을 입고다니는 흑룡강성사람들을 가리켜 <흑룡강곰> 이라고들 부른다. 목단강에서 길림으로 떠날 때 역전에서 오래동안 기다리기도 하고 기차를 갈아타며 왔지만 추운줄도, 힘든줄도 모르고 저마다 아이들처럼 좋아라 웃고 떠들었다.》고 말하였다. 그는 《왜 그렇지 않겠는가.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이 모셔져있는 길림에 올 때마다 꼭 어머니조국의 따뜻한 품에 안기는것만 같은 심정에 휩싸이곤 한다. 시집갔던 딸이 친정집으로 오는 즐거운

북산공원에 올라

태양절을 맞으며 재중동포들은 길림시내의 유명한 북

기분이다.》며 웃었다. 친정집으로 오는것만 같다!

소박하면서도 진실한 그들의 말에서 몸은 비록 지역에 있어도 어머니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이 깃들어있고 절세위인의 동상이 모셔져있는 력사의 고장을 언제나 가슴속깊이 안고사는 재중동포들의 뜨거운 충정의 마음을 후덥게 새겨안을수 있었다.

80여년전 뜻있는 조선의 열혈청년들은 식민지조선의 밤하늘에 새벽처럼 빛을 뿌리시는 위대한 청년지도자를 찾아 저마다 길림으로 달려갔다.

오늘도 중국에 사는 조선동포들의 마음과 발걸음은 길림으로 향한다. 수령님의 동상을 찾아, 수령님의 거룩한 발자취를 찾아.

산공원에 올랐다

김청수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길림지부

협회 부회장은 이곳을 찾은 동포들에게 북산공원이 유명한것은 경치가 아름다운데도 있지만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사적이 깃들어있어 더욱 널리 알려져있다고 이야기해주었다.

동포들은 북산공원에서 벌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그이께서 비밀회의를 진행하신 약방묘지하실을 돌아보았다. 붉은색칠을 한 나무사다리를 타고 내려서면 벽돌로 촘촘히 쌓은 5m² 되나마나한 공간이 나지는데 그곳이 약방묘지하실이었다.

약방묘지하실을 돌아본 김성일 방공기지부장장은 《바로 이 좁은 지하실에서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이 결성되고 길림청년도농성내투쟁과 같이 세상을 들끓게한 사변들이 수많은 조직되었다고 생각하니 감동을 금할수 없다. 길림을 비롯하여 동북지방에 수령님의 혁명활동업적이 깃

들어있지 않는 곳이 없다.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읽으면서 우리 수령님께서 얼마나 간고한 투쟁을 벌려오셨는가를 더 잘 알게 되었다. 수령님이시야말로 10대의 어린신 나이에 조국해방의 길에 나서시어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시민 민족재생의 은인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시다.》

송화강 흐름이 영원하듯이

은 민족과 진보적인류가 우리르는 불세출의 위인에 대한 재중동포들의 호모의정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우리는 15일 길림옥문중학교에서 진행된 태양절경축행사를 취재하면서 폐부로 절감하였다.

이날 태양절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보고대회가 진행되는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 앞은 재중동포들이 삼가 올린 꽃바구니와 꽃다발들로 황홀한 꽃바다를 펼쳐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

고 걱정을 터놓았다.

이것은 그만의 심정이 아니었다. 북산공원을 찾은 재중동포들 누구나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그리워지는 우리 수령님이다. 세상을 둘러보아도 수령님과 같은 대성인은 없다.》며 태양강국의 해외공민된 궁지로 가슴들먹이었다.

영원하듯이

들과 산하지구협회 및 지부대표들, 재중조선경제인협회 회원들,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 회원들, 길림시에 살고있는 공민들, 심양주재 우리 나라 총영사관 일군들을 비롯한 1 000여명이 참가한 보고대회에서는 최은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경사로온 태양절을 맞으며 중국을 비롯하여 해외동포들이 살고있는 그 어디에서나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대하가 끝없이 끊이치고있다고 하면서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은 어둠던 삼천리강산에 민족의 태양이 솟아오른 대동운의 날이며 인류의 앞길에 새 시대의 려명이 밝아온 경사의 날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어 지난날 세게지도에 빛을 잃었던 우리 조국이 온 세상에 사회주의 보루로 존엄과 위용을 떨치게 되었으며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 승승장구해올수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민족자주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경에하는 김정원수님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김일성조선의 새로

운 100년대를 강성부흥의 년대로 빛내여나가기 위한 애국위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고 호소하였다. 보고대회에서는 경에하는 원수님께 삼가 드리는 편지가 전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보고대회가 끝나자 《김일성동지의 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다》라는 주제의 사진 및 도서전시회와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 태양절경축음악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태양절경축행사를 통하여 재중동포들은 한평생을 오로지 조국과 민족,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대원수님들의 넉넉한, 인민의 리상을 눈부신 현실로 꽃피어나가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천출위인상을 가슴뜨겁게 새겨안았다.

재중동포들의 가슴속에 뿜어번지는 위인청송의 뜨거운 열기를 우리는 《수령님의 동상이 모셔진 려사의 땅에서 사는 해외공민의 예를 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빛내여나가겠다.》는 김명희 길림시지부 부지부장의 말을 통해서도 더 깊이 느낄수 있었다.

경축행사에서 받아안은 감동을 누릴길 없어 우리는 길림옥문중학교근처로 흐르는 송화강가로 나갔다. 민족의 성산 백두산천지에 시원을 둔 송화강,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전하며 어제도 오늘도 도도히 굴이쳐흐르는 려사의 대하를 바라보며 우리는 굳게 확신했다.

송화강의 흐름이 영원하듯이 우리 수령님은 해외동포들과 온 겨레의 마음속에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태양으로 영생할것이라는 것을.

본사기자 홍범식



불멸의 꽃에 비친 뜨거운 마음



《꽃색같이 하나같이 선명하고 꽃잎도 크구나.》
《저길 좀 보세요. 한꽃대에 26송이의 김일성화가 났어요.》

길림옥문중학교에서 열린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장을 찾은 재중동포들은 진분홍빛꽃잎과 붉고붉은 꽃잎을 활짝 펼친 태양의 꽃들앞에서 저저마다 발걸을 떼지 못하였다.

활짝 핀 태양의 꽃들을 바라보니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이 자애로운 품에 안긴것만 같다며 눈시울을 적시는 길림에 사는 홍영순동포를 비롯하여 꽃전시회장을 찾은 참관자들의 물결은 그칠줄 몰랐다.

떠오르는 태양을 배경으로 활짝 핀 불멸의 꽃들의 모습에서 절세위인들에 대

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날과 달을 이어온 재중동포들의 마음이 력력히 어려왔다.

꽃전시회장이 참 이채롭게 장식되었다는 우리에게 황진생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길림지구협회 회장은 겨레의 마음속에 태양으로 영생하고계시는 절세위인들에 대한 흠모심을 안고 불멸의 꽃들을 활짝 꽃피우기 위해 온갖 지성을 다 기울여온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김일성화와 김정일화재배에서 온도보장이 기본이라고 하면서 여러차례 협의를 거듭하며 대책을 토의한 이야기, 머나먼 곳에서 꽃재배에 종사하는 부식도들을 성의껏 마련하여 보내준 이야기, 태양의 꽃을 더 잘 피우는데 필요한 보다 좋은 재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인총련합회 부의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영원히 높이 우리러모시고 경에하는 김정원수님을 받들어 충정을 다해갈 재중동포들의 굳센 신념과 의지에 뿌리를 내린 태양의 꽃이 여서 이렇듯 훌륭한 경축의 꽃바다를 이루고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였다. 이런 불꽃은 애국충정에 떠받쳐져서 태양의 꽃들이어서 불수록 송엄하게 안겨오는 것 아니랴.

실로 자연의 꽃은 철따라 피고지지만 해외동포들의 마음속에 뿌리내린 태양의 꽃은 계절을 모르며 영원히 만발할것을 이루고있는것이 새겨준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였다.



본사기자

하는 우리 녀성들이 국제무대에 당당히 진출하고있는것이 그리도 대견하시여 오찬을 차려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우리 해외동포들에게 배풀어주시던 사랑과 은정은 오늘 경에하는 원수님에 의해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 원수님께서는 나라일이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우리 재중동포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주실수 있는 사랑을 다 돌려주고계신다.

이번에도 그이께서는 우리 재중조선공민들이 편리도록 조국방문을 할수 있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셨다. 생각지 못했던 배려를 또 다시 받아안고보니 가슴이 뜨거워진다.

어쩌면 우리 해외공민들의 심정을 그처럼 속속들이 헤아려보시고 어머니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는지 꼭 아버지이수령님그대로 이시다. 요즘은 밥을 먹을 때나 잠을 잘 때나 원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할 한가지 생각뿐이다.

나는 해외동포들에게 돌려주시는 절세위인들의 따뜻한 사랑을 언제나 잊지 않고 조국의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애국사업에 있는 힘과 열정을 다 바쳐가겠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심양시지부 회원
림순자

절절한 그리움 노래에 담아

백두의 천출위인을 청송하는 재중동포예술인들의 태양절경축음악회가 진행되는 길림옥문중학교체육관은 수많은 관람자들로 차고넘쳤다.

재중동포예술인들은 녀성3중창 《수령님 밤이 떠났습니다.》, 녀성독창 《내나라의 푸른 하늘》, 《포전길 걸을 때면》을 비롯하여 많은 종목들을 음악회무대에 올렸다. 그 하나하나의 종목마다에는 이역땅에서도 태양강국의 궁지를 안고사는 재중동포들의 뜨거운 감정이 담겨져있어 관람자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특히 단동시에 사는 리영호동포가 부른 남성독창 《노래하라 만경대갈림길이어》는 관람자들의 심금을 크게 울리었다.

팡팡의 피어린 길 헤쳐오시며
스무해 긴긴 세월 못 잊던
고향집

열려진 사립문을 지척에 보시며
장군님 지나가신 만경대
갈림길이어
...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오시며 꿈결에도 잊지 못하시던 그리운 고향집을 지척에 두시고 새 조국건설의 불길을 지피시러 강산을 찾으신 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담은 노래를 들으며 재중동포들은 그이의 애국애족의 고결한 한평생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았다.

이역땅에서 살면서 해외동포들이 가슴속깊이 새긴 인생체험이 있다. 그것은 절세위인을 모시여 조국으로 있고 자기들의 운명도 있다는 철통이었다.

한세기전 나라없는 설움을 안고 낯설은 타향으로 뿔뿔이 흩어지지 않으면 안되었던 망국노의 후손들이 오늘 절세위인을 모시여 값

은 삶과 존엄을 누리며 살고 있지 않나.

눈을 감으면 어머니조국의 사랑속에 흘러온 나날들이 어려오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자애로운 모습이 못건디게 그리워 평양하늘가를 바라보며 잠 못 들던 재중동포들이기에 《수령님》,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렵니다》 등의 종목들에서 자기들을 한 품에 안아주시는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을 절절히 노래하였다.

위인청송의 송고한 감정을 높은 예술적화폭으로 펼쳐보인 음악회는 노래 《불타는 소원》에서 절정에 달하였다. 공연을 본 장군화할민사범대학 음악학부 교수는 이렇게 말하였다.

《한없이 친근하신 경에하는 김정원수님을 모시여 이역에 살아도 우리 마음은 언제나 따뜻하다. 하기에 지나가나 우리의 소원은 오직 하나 원수님의 안녕뿐이다.》

위대한 대원수들의 사랑을 이으며 인민위한 한길만을 걸으시는 경에하는 원수님께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때를 불타는 신념을 소리높이 구가한 태양절경축음악회는 관람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었다.

본사기자

